

연중 제 3 주일

기도서 P. 333 A해

- 1독 (이 사 8, 33b-9, 3절)
- 2독 (고린전 1, 10-13, 17절)
- 복음 (마 태 4, 12-23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 론 □



빛을 찾아서...

김진석 신부

겨울이 깊어갈수록 따스한 햇볕이 더욱 정겨우게 느껴지고, 집을 지을 때에 남향(南向)을 고려하는 모습에서도 우리들에게는 밝은 곳을 찾는 향일심(向日心)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늘을 싫어하는 우리들의 심성(心性)은 태양뿐만 아니라 빛과 어두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면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용하는 말에 있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 들어서면서부터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구호가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사실, 각종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이 사회안에는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창세기 1, 27)들이 아닌, 악마들만 살고 있는 듯하다. 연일 보도되는 사기, 절도, 강도, 살인등을 비롯하여 세금포탈, 뇌물수수, 횡령등은 분명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사건들이다. 한층, 두려운 것은 주변 환경에 민감한 우리들이 처음엔 거부했던 어두움에 대해서도 날이 갈수록 면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은 돈만 벌면 해결된다는 배금사상(拜金思想)을 낳았고, 연탄값 인상에도 울상짓는 서민 대중과 이웃해 살면서도 그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한없는 허영심을 충족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치족들의 몰인정등은 생명 경시 풍조와 함께 인간성을 추락시키는 지름길을 닦고 있는 듯하다. 정말로 우리들은 어두움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빛을 못본채 죽어가는 사산아처럼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겁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두운 방을 비추기 위한 등불처럼 어두어저가는 사회를 밝혀줄 빛이 필요할 때이다. 그 빛은 사람을 밝히며, 세상을 밝히는 빛이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빛을 찾아야 하는가?

그 빛은 진선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죄를 미워하나 떠날 수 없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능력과, 죽음앞에서도 몇몇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야만 한다. 결국 우리에게서 죄와 죽음을 물리치고 “민족의 빛”이요 “세상의 빛”으로 군림하신 예수님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예수님을 모셔들이지 못하는 것은 불법적인 탐욕과, 허영과 방종을 불러일으키는 부도덕한 쾌락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려는 그릇된 욕망을 이기십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옷에 묻은 먼지와 같이 어두움을 가져오는 생활을 벗어날 때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할 것이며, 빛을 발견한 우리 하나 하나가 그리스도를 따라 회생과 봉사하는 등불을 켜고 사랑과 정의를 생활로 실천할 때 “모든 민족의 빛”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으라”(시편 23, 4)고 자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상사물에만 급급하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의 생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중앙 전주교회 보좌신부)



눈물흘린 챔피언

지난 주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마음을 울려주는 권투경기를 볼 수 있었다. W.B.A. 프라이급 챔피언 잭탈린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학교만 나와서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권투를 시작했다는 젊은 챔피언— 그에게 도전한 28세의 성실하고도 입지전적(?)인 도전자의 대결은 그 누구도 짐 수 없는 경기였다. 그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힘껏 싸웠다. 그러나 경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도전자의 눈두덩이 찢어져 게임은 끝났다. 지지분하게 영겨붙는 클린치 한 번 없이 깨끗이 싸운 모범적인 경기였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박수를 보낼만한 경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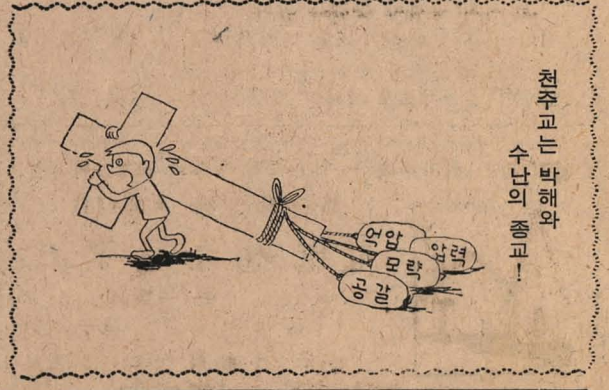
너무나 순수하고도 교훈적인 <극>은 경기가 종료된 다음부터 벌어졌다. 으레히 그러하듯 승자는 패자를 껴안았다. 그러나 그 껴안은 모습은 분명히 인사치레도 쇼도 아니었다. 너무나 진지하게 포옹하는 그 장면은 누가 뭐라해도 한 폭의 성화(聖畵)임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 챔피언은 제자리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렸다. 챔피언 인정서를 받으면서도 울었다. 쇼가 아닌 사나이의 눈물을 볼 수 있었다.

도전자가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기도 전에 부상으로 경기가 끝났다는 사실, 도전자의 성실한 자세. —이것이 챔피언을 울게한 이유라고 해설자는 말했다. 어쨌든 훌륭한 챔피언을 볼 수 있는, 보는 이에게 교훈과 기쁨을 준 경기였다.

세상에는 수많은 경기가 치뤄지고 있다. 특별히 정상을 놓고 겨루는 경기가 어느 나라에서나 있다. 그 경기에서 가끔 더티 플레이가 나온다. 필리핀의 대통령이라는 마르코스가 아퀴노에게 보여준 처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아니, 나는 나와 겨루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최선을 다해서 깨끗이 싸우자. 상대방도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놓고 싸우자. 그렇지 않은 것은 폭력이나.

숲 정 이 산책



천주교는 박해와 수난의 종교!

기독교의 선교와 사회정의

이 글은 지난 1월 16일 성십학교와 해성학교 교직원 연수회에서 행해진 환완상 박사(前 서울대 교수)의 강의를 아주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文責在 記)

1.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경말씀)

① 마리아의 노래

처녀가 아이를 낳겠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예수 탄생의 예고를 들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 축하의 인사를 받았다. (루가 1, 26-45)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성령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구세의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다. (루가 1, 46-55)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

②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표현

1. 이사야의 예언

예수께서는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지역인 갈릴레아에서 가르치시다가, 자기가 난 가장 보잘 것 없는 지방 나자렛의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자신을 보여 주셨다. (루가 4, 16-19)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복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두루 선포하게 하셨다. —

2.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

예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은 감옥에서 궁극증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그 대답을 듣게 된다. (마태오 11, 2-6)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분을 기다려야 하였습니까?”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나에게 의심할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③ 위의 말씀이 뜻하는 의미

위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망은 권력(權力),

재산(富), 명예(名譽)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들은 성경말씀은 권력에 의해서 억압(抑壓)받고, 부력에 의해서 수탈(收奪)당했으며, 명예를 지닌 자들에게서 차별(差別)받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과 그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이다.

너무나 억눌려서 깨어진(人間 破滅) 보잘 것 없는 자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었고, 귀머거리를 듣게 했으며, 병어리를 말하게 한 것이다. 그는 나병환자를 고쳐주시고 사제에게 가서 증명을 받도록 했다. (마태오 8, 1-2) 그는 소외된 나병환자를 철저히 사회적 환원을 시킨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치사 없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 전체의 해방인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선교는 인간의 해방, 곧 사회정의의 구현에 있는 것이다.

2.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예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루가 10, 25-37)에서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이웃을 사랑하라.”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수탈)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 놓고(억압, 고문) 갔다(소외, 유기).” 이 말씀은 강도(불한당)가 있는 곳에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가르침이다. 또한 교회도 강도(불한당)가 있는 곳에서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린 사제와 레위사람 이야기에서 말로만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우리들을 미리 고발한 가르침이다. 마태오 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보잘 것 없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기독교의 선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자명하게 들어났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떠나야 한다. 그 떠남이 어쩌면 강도를 찾아 떠나는 그것인지도 모른다.

3. 기독교의 선교와 사회정의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의의 구현(선교)에는 치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고난과 박해, 나아가서는 죽음이다. 이는 역사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명이기도 하다.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다.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유산이요, 자랑인 것이다.

설계·감리·허가수속 □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 (금구(연))

☆전수 기록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1449(야간)

☆고교·대학 진학, 공무원 고시 전문!!

이리경문학원

◎이리역앞(서울 신탁은행4층) ☎ 5943

□ 검정 고시반(78년4월, 8월대비 대입검정·고입검정)

□ 고입 종합반 □ 대입 종합반

□ 4·5급 공무원반(행정직, 교정직, 농조, 검찰)

□ 구라 주일을 앞두고 □



나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나환자, 엠마, 릴리희, 술집 아가씨들—

이 제 창 신부 (천안 본당)

나환자, 나병이라 하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선 무서운 병으로 이맛살을 찌푸리며 외면하고 피하려한다. 그러나 현대 의학은 나병은 나균에 의해 전염되는 전염병의 일종임을 밝혀냈고, 일찍 발견하여 치료하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으로 개가를 올렸다. 결코 나병은 유전병도, 천형병(天形病)도 아니다.

나환자는 의롭다. 이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고향산천이 있고, 부모가 있고, 어릴 적에 뛰놀던 소꿉 친구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고향을 떠나야 하고, 부모·형제 곁을 떠나야 한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요,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라.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이들,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이들과 함께 칩식을 같이하며 살고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으니, 엠마 프라이징거다. 현재 한국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장이며, 주한 서독 구라회 대표로 있는 엠마는, 경북 칠곡에 있는 가톨릭 피부과 병원장으로 그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천사”라는 일컬음을 받고 있다.

엠마는 오스트리아 출생으로 그곳 국립 간호대학을 졸업 후, 우리 한국의 나환자들을 위해 17년전 1961년 4월 24일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결며, 말걸은 우리 한국에 온 것이다. 이 사회의 냉대와 멸시를 받는 나환자, 이들을 위해 진정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는 사랑의 봉사를 다하려고 온 것이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마태 25, 40)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엠마는 이들 나환자들을 주 그리스도를 대하듯,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다.

“릴리희”를 통해서 작년 9월 5일 너무나도 만나고 싶던 엠마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칩실 겸 사무실로 쓰는 원장실이 두 평이나 될까? 반갑게 맞아 주는 활짝 웃는 모습의 엠마, 진정 겸손한 엠마였다. 찾아간 나에게 오히려 고마와 어쩔줄 몰라한다. 참으로 감사해야 될 사람은 나인데……

릴리희는 1970년 1월 한국은행 부산지점의 한 아가씨에 의해 탄생했다. 엠마를 만나고, 그 하는 일을 보고 알았기에, 정기적으로 조금이나마 그 뒷바라지를 해 보자는 가목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전국에 그같이도 급속히 번졌다.

릴리희비는 나환자들의 눈썹이식수술, 손발이 마비된 이들에게 의수족을 해 주는 데 주로 쓰여진다.

「조선일보」 1977년 10월 11일자 「만물상(萬物相)을 보셨으리라. 서울 무교동 술집 동네에 있는 극장식 맥주홀 아가씨들이 “덜 받은 센치고” 매일 백원짜리 한 닢씩 한 달에 3천원을 낸다. 30여명이 1975년 2월부터 시작하여 3년동안 3백만원의 “라자로 마술”의 이경제 신부님께 전달했다는 미담이었다. 이 얼마나 가목하고 훌륭한 일인가!

(이 글은 경향잡지 1월호에서 발췌한 것이다)

요심이 (234)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미워하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권력으로 죄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자 이니라

아빠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 안심이다

☆ 교우님들의 협조를... ☆

문의상실

문 정 실 (세시리아)
☎ 군산 6224

군산시 죽성동 영동 파출소 옆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로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전 교 사 채 용

뜻 있는 분 연락을
연락처 ☎ 이리 2325

인 원 : 1명
제출서류 : 이력서, 영세증명서,
사진 1매
기 한 : 1월 31일
제 출 처 : 창인동 성당 사무실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동
(전화 ☎ 4577, 5789)

□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료, 스킬

문 화 양 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2-3170, 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 찾아 주세요 □

이 신경 외과 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대구집)

전화 ☎-9793

원장 이 중 두(헨리코)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
지
사
향

1. 78년 1월 정의 평화 기원 미사 (23일 <월> 오후 7시 반, 전동 성당, 김재덕 주교 주례)
유고를 치루신 문정현(전주)·함세웅(저울)·신현봉(원주)신부 공동집전
78년 들어 처음 갖는 정의 평화 미사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정의 평화 위원 모임 (23일 <월> 11시, 교구청)
2. 본당 및 공소 주일학교 교리 교사를 위한 연수회 (23일 <월>-27 <금>, 가톨릭 센터)
3. 성가 지도자 교육 (28일 <토>) 오후 3시-29일 오후 3시, 가톨릭 센터)
참가대상.....각 본당 신부가 추천하는 사람 (각 본당에서 2명씩)
4. 평신도 지도자 교육은 대상자 선정이 끝난 다음으로 연기, 착오 없으시기 바람.
5. 다음 주일은 구가주일.....나병으로 고통 받는 형제들을 기억 합시다.
6. 전북지구 영제회 월례회(28일 오후 2시, 노송동 사제관) 각 형제회 간부 참석 바람
7. 사제 양성을 위한 강론 연수회(29일 오전 11시, 가톨릭센터)

(중앙)

전화 ③651
3874

수임 신부 서 동 특
보좌 신부 김 진 석
보좌 신부 범 영
사도 회장 이 북

1. 유아세례 : 27일 <금> 어머니 미사후
2. 78년도 교무금 신임 및 납부 바랍니다
3. 구정을 맞이하여 불우 이웃을 도움시다 (사무실)
4. 애령회 임원개선 : 회장-하정호, 부회장-원현식,
회계-한귀자, 고문-이갑진, 감사-이두만
5. 학생회 동계 세미나 : 27일 <금> 오전 9시, 강당
□ 지난주 봉헌금 : 133,770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동
사도 회장 박 종

1. 오늘 3회 재속 청년 피정 있습니다
2. 청장년 피정 : 29일, 노송 신우회 주최
참가비는 없고 점심 제공함, 사무실에서 접수
3. 유아세례 : 28일 <토> 오후 2시 반
4. 어머니 합창단 임원개선 : 단장-백 베로니카,
부단장-안모니카, 총무-장마리아, 서기-정안젤라
회계-엄엘리사벳, 수고 하시겠습니다
5. 선교분과 위원회 산하 단체장 모임 : 오늘 저녁 미사
후, 사제관에 빠질없이 참석 바람
6. 학생회, 29일 갠생원 방문, 학생들 협조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53,605원, 감사 합니다

(덕진)

전화 ②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유 제 상

1. 본당 사도회장에 유제상(토마스), 감사에 김정규(요
셉), 소완영(스페타노)씨 2년간 수고하시겠습니다
2. 봉헌은 1/10조 정신으로 정성껏! 신임은 사무실에
다음주 부터 사도회에서 미신입자 가정방문 있음
3. 학생회 정기총회 대비 임원 회의 (교1, 2일원)
4. 보미사단 단합대회 : 29일 미사후, 경비는 본당 부담
전원참석 바람 <자세한 것은 김성근(베드로)에게...>
5. 가져가신 성서 대금 속히 완납 바랍니다
6. 구사도회 임원 모임 : 미사후, 신부님사무실
□ 축 결혼! 오윤택(안드레아)군, 김옥희(레지나)양
22일 오전 11시 반, 오현택 신부님 주례
□ 지난주 봉헌금 : 67,55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반회장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사제관
2. 사도회 상임위원 긴급 임시회 : 오늘 공식 미사후,
회의실
3. 주일학교 특별 교리에 수고 주신 일일 교장께 감사
드립니다
4. 중고생 교리 : 매 주일 공식미사후, 강부제님 지도
5. 학생회 정기총회 : 29일 공식 미사후, 신회장단 선출
6. 특별헌금 감사! 박박오로써 -3천원(톱밥)
□ 지난주 봉헌금 : 165,66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교리교사 모집, 뜻 있는 분의 봉사 바랍니다
2. 성가 지도자 교육 : 28-29일, 가톨릭 센터
3. 중고생 특별교리 : 23-28일, 오후 3시 부터
□ 지난주 봉헌금 : 43,995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1. 요한회 첫 월례회 : 29일 공식 미사후, 회비 지참
2. 다음 주일 (29일)은 교구비 납부 주일, 정성껏 봉헌
합시다
3. 반회합 : 태평동-23일, 진북 2동 2반-25일
4. 중고생 성경 연구에 참석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14,28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사도 회장 유 종 석

1. 부활 영세자 교리 : 주일 9시 미사후-학생, 10시
미사후-일반, <수> 7시 미사후-젊은 남녀, <금> 7시
미사후-직장인
2. 주일학교 선생 선발 (6명)
3. 젊은이 클로리아 성가대원 선발 (약간명)
4. 선교분과 모임 : 주일 저녁
5. 재정분과 모임 : 월요일 저녁
6. 중고생 단합 등반 : 모악산
※ 새 성당 건립금 완납 바람 (파티마 성모상 건립)
□ 지난주 봉헌금 : 147,835원

가족으로 초대

노력하는 만큼의 보답을 얻게 해 드립니다. 그 보답은 하느님의 사업도 하실 수 있고, 사람다운 생활도 보장해
드릴 것 입니다. 교우분들의 애호와 성원으로 자라온 한국 온수보일러 (연탄 보일러, 가정용 목욕탕)는 해를 거
듭하는 동안, 제품에 대한 자신과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긴 본제품을 더 많
은 분들이 이용 하실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가족이 되실분들 초대 합니다.

- ① 시, 군, 읍, 면소재지 (본당 또는 공소단위)
- ② 지점 계약금은 없고 적극 후원해 드림
- ③ 간단한 교육으로 누구든지 시공할 수 있음
- ④ 각 단위별 선착순 (선용과 의욕만 있으면 층분조건)

한국 온수온돌 공업사 호남지사

지사장 한 동 암(모세) 연락처 : 이리시 인화동 2가 65, 열관리 연구소 전화 이리 8629, 군산 3032.